

인삼약초산업의 위기극복방안

양 계진 (중부대 생약자원학과 교수)

고려인삼(*Panax ginseng* C. A. meyer)은 우리 선조들의 영토였던 만주지방과 한반도가 자생지로서 그 약효가 매우 뛰어나 만병통치약으로서 널리 알려져 왔고, 우리나라 인삼만이 사람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최고의 가치를 지닌 식물이다. 현재 고려인삼은 한국, 중국, 일본, 북미 및 유럽 등에서 재배되고 있다. 이 중에서 한국은 세계 총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국제시장 점유율도 35%정도로 국내의 타농산물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인삼 산업은 현재 침체적인 분위기에 있다.

최근 중국의 WTO가입은 인삼 및 한약재의 무분별한 수입을 가속화하여 국내의 인삼 및 한약재시장의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의 농산물 수입 개방, 전매제도폐지 및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로 인한 업체간의 과다경쟁 및 품질저하, 최근 국내경기침체로 인한 국내의 인삼 소비 감소, 그리고 빠른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인삼시장 및 인삼유통구조 등이 있다. 최근 중국은 인삼 생산량이 우리나라의 2배정도이며,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저가의 인삼을 국제시장에 대량 유통시켜 국제시장을 빠르게 잠식함으로써 우리나라 인삼의 수출을 격감시키고 있으며, 값싼 중국산 인삼의 국내시장으로의 밀반입은 국내의 인삼가격의 하락을 야기시키며, 일반 소비자가 중국산 인삼과 국내산 인삼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해 낼 수 없기 때문에 농약잔류로 인한 국내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 소비자의 인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백삼의 수출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백삼업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국내의 인삼유통과정에서 중개인의 역할에 의하여 인삼 유통 및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서 인삼재배가의 소득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서 대단위면적의 인삼재배가 이외에는 인삼재배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인삼시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현대적인 개념을 도입하고 있지 않아서 고려인삼의 경쟁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최초에 인류가 식물중에 유독성분을 함유한 식물을 식용으로 사용하여 부작용을 나타내었을 때 우연히 다른 식물들을 먹음으로써 자연적으로 치유하게 되었다. 이후 인류가 병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연의 동·식물을 약물로 사용하였고, 우리나라 단군신화에서도 쑥과 마늘을 이용한 기록이 남아 있다.

한약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식물, 동물 및 광물 등의 천연물질을 정제나 가공을 거쳐 한의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질병을 진단, 치료 및 예방하는데 사용되는 약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약재중 식물이 8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식물성한 약재는 야생에서 채취되거나 일반 농산물과 같이 재배 또는 수입되어 유통된다. 예전에는 한약재를 야생에서 채취하였으나 자원의 고갈 및 채집노동력의 감소로 인하여 국산한약재의 경우 주로 재배 또는 사육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약재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80%이상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배되는 국산한약재는 대부분 농산물과 같은 형태로 재배되어 유통되기 때문에 농산물에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약재의 수입은 자국산 농림·축·수산물의 보호하에 자국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통상외교경로를 통한 수출입에 대한 압력 또는 가공공정에서 장기저장을 위한 농약의 사용 혹은 무역중개상들이 품질위주가 아닌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저질의 한약재 수입 등과 같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한약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이 목적인 약물이므로 유효성과 안정성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한 일정한 일정한 규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한약은 채집시기나 산지, 품종, 약용부위, 가공방법 등에 따라서 품질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품질관리 및 유통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생산국의 한약재중 국내의 한약재와 명칭은 같으나 실제 내용이 다르고 위품이 혼용 또는 혼합되기도 하며, 품질에서도 차이가 있다. 국내의 한약재 유통에서도 특용작물로서의 한약재 유통과 의약품으로서의 한약재 유통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복잡한 한약재의 유통으로 인하여 유사품 및 위품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약재의 식물학적 분류 및 약효성분에 대한 기준 설정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인삼 및 한약재산업의 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과 대책을 알아 보고자 한다.

1. 인삼 및 한약재의 현황

1. 인삼 현황

국내의 인삼생산량은 1990년에 13,887톤에서 점차 감소하다가 2000년에 15,950톤으로 증가하였다. 생산액은 1990년에 1,978억원에서 1999년에는 3,932억원으로 약 2배정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재배농가수와 재배면적은 감소하였으나, 2000년에는 12,444ha로 1990년에 비해 증가하였다.(표 1)

표 1. 인삼생산현황

년 도 구 분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재배농가(호)	36,404	23,172	20,399	22,170	24,702	-
재배면적(ha)	12,184	9,375	9,903	10,349	11,561	12,444
생산액(억원)	1,978	2,839	3,049	3,136	3,932	-
생산량 (톤)	13,887	11,971	11,259	11,478	14,500	15,950

인삼수출량과 수출액은 1993년에 각각 5,470톤과 144백만불로 최고치를 보이다가 매년 감소하여 2000년에는 수출량이 3,830톤, 수출액이 69백만불로 격감하였다.(표 2)

표 2. 년도별 수출량 및 수출액

년 도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수출량(톤)	4,770	5,290	5,470	4,600	4,510	4,410	4,320	4,430	4,060	3,830
수출액(백만\$)	147	162	144	117	142	114	89	89	91	69

우리나라 인삼 및 인삼제품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 홍콩, 대만, 미주, 동남아시아, 중국 등이다. 중국의 경우 1999년에 수출량이 12톤에서 2000년에는 수출량이 39톤으로 약 3배정도 신장되어 추후 인삼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표 3)

표 3. 국가별 인삼 및 인삼제품 수출실적

	수 출 량(톤)		수 출 액(1,000\$)	
	1999년	2000년	1999년	2000년
일 본	619	493	21,588	12,549
중 국	12	39	1,310	1,792
대 만	193	82	17,738	8,473
홍 콩	314	112	29,921	14,877
동남아	335	329	2,896	3,173
유 럽	79	62	3,751	2,662
미 주	293	354	5,722	2,578
중 동	172	171	439	566
기 타	29	170	231	407

2. 한약 현황

한약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식물·동물 및 광물 등의 천연물질을 정제와 가공을 거쳐 한의학적인 이론에 의해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치료 및 예방의 목적으로 사

용하는 약물로 정의되어진다. 한약재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식물·동물 및 광물 등의 천연물질로서 한약의 재료가 되는 물질로 정의된다.(표 4)

표 4. 현행법규상 한약, 한약제제 및 한약재에 대한 개념비교

구분	개념	근거
한약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질단 또는 정제된 생약	약사법 제2조 2항
한약재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약재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 제2호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로 사용되는 원료약재	약사법 제2조 제5항 또는 제6항
한약제제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	약사법 제2조 5항

중국에서 1985년부터 1989년에 걸쳐 조사한 중국의 중약자원은 총 12,772종으로 이중 약용식물이 약8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표 5)

표 5. 한약자원 현황

분류	과(科)수	속(屬)수	종(種)수
약용식물	385	2,313	11,118
약용동물	414	879	1,574
약용광물			80

자료 중국중약자원, 1995

한약재로 사용되는 약용식물은 종자식물류, 껍류, 균류, 조류, 지의류, 선대류순이었으며, 약용종자식물류에는 나자식물과 피자식물로 분류되고, 전체 약용식물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다.(표 6)

표 6. 한약재로 사용되는 약용식물자원

분류	과(科)수	속(屬)수	종(種)수
조류	42	53	114
균류	41	110	298
지의류	9	15	55
선대류	21	33	43
껍류	49	117	455
종자식물류	223	1,984	10,153

자료 중국중약자원, 1995

약용동물자원의 종류는 다양하여 한약재로 사용하는 약용동물들은 11문, 33강, 141목, 414과, 879속, 1574종이다.(표 7)

표 7. 한약재로 사용되는 약용동물자원

문(門)	강(綱)	목(目)	과(科)	속(屬)	종(種)
원생동물문 Protozoa	1	1	1	1	2
해면동물문 Spongia	1	1	1	1	2
강장동물문 Coeleterata	3	9	13	13	20
연체동물문 Mollusca	4	17	52	98	197
성충동물문 Sipuncula	1	1	1	2	2
환형동물문 Annelida	3	4	8	13	30
절지동물문 Arthropoda	6	27	107	188	310
태선동물문 Bryozoa	1	1	1	2	2
극피동물문 Echinodermata	4	8	14	24	38
원색동물문 Prolochordata	2	2	2	2	3
척추동물문 Vertebrates	7	70	215	517	968

자료 중국중약자원, 1995

약용광물로는 철화합물, 구리화합물, 마그네슘화합물, 규소화합물, 유색금속, 화석, 기타 등 12류, 80종이다.(표 8)

표 8. 광물성한약재들의 종류

종 류	종(種)수
철 화합물	7
구리 화합물	4
마그네슘 화합물	7
칼슘 화합물	13
칼륨 화합물	2
나트륨 화합물	6
수은 화합물	2
비소 화합물	4
규소 화합물	16
유 색 금 속	7
화 석	4
기 타	6

자료 중국중약자원, 1995

한약재의 유통시장은 기능에 따라 산지시장과 소비자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지시장은 각 지역마다 분산된 생산물을 수집하는 산지수집상, 산지위탁상, 협동조합, 작목반 등에 의하여 형성된다. 소비자시장은 수집된 한약재를 분산·소비하는 역할을 하며 도·소매업자, 중매업자, 제조업자들이 활동한다.대표적 시장으로는 서울 경동시장, 대구한약재시장, 그리고 금산한약재시장이 있다.(표 9)

표 9. 산지시장과 소비지시장의 개념

	산지시장	소비지시장
역 할	분산되어 있는 생산물의 수집	수집된 한약재를 분산·소비
대표적인 시장	- 제천시 한약재 전문 수집시장 - 정선군 약초시장 - 영천, 금산, 전주, 정읍시장	- 경동 시장 - 대구 한약재 도매시장
해당자	수집상, 위탁상, 협동조합, 작목반 등	도·소매업소, 중매업소, 제조업소

국내에 유통중인 국산 한약재는 104종으로, 이중 한약규격집에 수록된 종이 44종, 대한약전에 수록된 종이 60종이다. 수입한약재가 327종인 것에 비하면 국산 한약재의 수가 매우 적을 뿐만아니라, 국산한약재 대부분은 식물성 한약재이다.(표 10)

표 10. 유통 중인 국산 한약재
(단위 : 종)

한약규격집 수제품목(44종)	대한약전 수제품목(60종)
감국, 강활, 고본, 곽향, 구맥, 구절초, 내복자, 대계, 목과, 목적, 백선피, 백편두, 백합, 복분자, 복신, 사삼, 석창포, 소자, 속단, 여정실, 영지, 오공, 위령선, 위유(옥죽), 인동, 인진호, 자원(자초), 전호, 조각자, 죽여, 지골피, 지부자, 지유, 지황, 진교(진법), 진피, 창어자, 천마, 토사자, 포공영, 하수오, 해동피, 향유, 호장근	갈근, 개자(백개자), 건강, 결명자, 과부근(천화분), 구기자, 금은화, 길경, 당귀, 대황, 독활, 두충, 맥문동, 목단피, 목통, 박하, 반하, 방풍, 백지, 백출, 복령(백복령), 산수유, 산약, 산사(산사자), 상백피, 승마, 시호, 연교, 오가피, 오미자, 오배자, 용담(초룡담), 우슬, 의이인, 음양곽, 익모초, 자소엽, 작약, 지실, 지모, 차전자, 창출, 천궁, 천남성(남성), 천문동, 치자, 택사, 패모, 하고초, 행인, 향부자, 현삼, 현초(현지초), 현호색, 형개, 황금, 황기, 황백, 황정, 후박

한약재 총재배면적은 9,552ha이며, 이중 강원도가 2,388ha로 가장 많았고, 총생산량은 29,446톤으로 이중 경북이 7,029톤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은 재배면적은 강원도에 비해서 적으나 대구의 한약재시장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표 11)

표 11. 한약재의 도별 재배면적과 생산량

지역	재배면적(ha)	생산량(ton)
경북	1,970	7,029
강원	2,388	4,971
충남	756	3,770
제주	431	3,098
전남	943	2,779
전북	898	2,364
경남	658	2,282
경기	720	1,594
충북	788	1,559
전국(계)	9,552	29,446

자료 농림부 원예특작과, 1999

우리나라 한약재 생산현황을 살펴 보면, 199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약초재배가 일반 작물과는 달리 재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약초를 재배하는 재배가는 약초재배경력이 6년 이상이 대부분이었다. (표 12)

표 12. 우리나라 한약재 생산현황

구분	1990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농가수(천호)	54	64	69	64	53	50	44
재배면적(100ha)	9.2	14.1	15.3	15.0	14.0	13.6	10.9
생산량(1000톤)	22.8	37.4	35.3	42.0	42.8	39.5	30.5
생산액(억원)	1,280	2,394	2,427	3,014	2,060	2,380	?

농림부 채소특작과, 1999년

한약재수입은 1957년 140만불에서 1995년에 1억8,172만불로 약130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5년이후에는 감소하여 1998년에는 3.077만불로 감소하였다.(표 13)

표 13. 한약재 수입 현황

(단위 : 1000\$)

구분	1957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수입	1,400	2,154	3,641	14,691	40,005	93,735	19,487	67,061	181,718	114,392	90,288	30,767

자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1998

우리나라에서 한약재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총 25개국이다. 주요 한약재수입국은

중국, 뉴질랜드, 북한, 브라질, 호주, 베트남, 독립국가연합, 몽고 등이다. 이중 중국의 수입액은 6,385,604불로 전체 수입액의 약37%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한약재로는 감초, 계피, 길경, 녹용, 녹각, 복령, 오흥, 위유, 차전자 등 있다.(표 14)

표 14. 주요 한약재수입국

(단위 : US\$)

국 가	실 적	주요 수입 품목
중 국	6,385,604	감초, 계피, 길경, 녹용, 녹각, 복령, 오흥, 위유, 차전자
뉴질랜드	3,106,900	녹용, 녹각
북 한	1,903,885	만하, 백출, 복령, 복분자, 오미자, 위유
브 라 질	1,581,110	우황
호 주	1,604,000	우황
베 트 남	651,773	강황, 계, 사인, 용안육
독립국가연합	526,121	녹용, 녹각
몽 고	345,000	녹각
기타(17개지역)	1,569,967	
계	17,134,360	

자료 의약품수출입 통계정보, 1998

표 15. 식물성 중약재의 약용부위별 야생분포량, 재배량, 연간 생산량 및 수요량

(단위 : kg)

항 목	야생분포량	재배량	연간생산량	연간수요량
뿌리, 뿌리줄기류	4,872,000	186,600	247,300	207,000
잎 사 귀 류	857,000	7,340	9,600	4,500
꽃 류	108,000	18,600	16,600	13,300
중자열매류	610,000	69,200	65,000	55,130
전 초 류	1,471,000	24,300	106,600	31,480
수 지 류	2,630	2	8	190
규 조 류	80,000	15,000	8,300	11,100
껍 질 류	309,000	14,200	10,700	12,800
덩굴식물류	213,000	13,800	9,600	12,200
기 타 류	7,880	470	760	560
식물류약재총량	8,530,000	349,500	474,400	348,300

자료 중국중약자원, 1995

중국에서 생산되는 320종 식물성 약재는 약888만톤으로, 이중에서 야생식물이 170~200종, 853만톤이고, 재배종이 120~150종, 약35만톤이다. 식물성약재중 뿌리 및 뿌리줄기류의 야생분포량과 연간생산량이 총생산량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15)

표 16. 상용되는 동물성약제의 야생분포량, 사육량, 연간공급량 및 연간수요량

품 명	야생분포량(톤)	사육량(마리)	연간공급량(kg)	연간수요량(kg)
토별층	732,000	327,500	24,700	264,000
녹 용	95,600	78,900	47,200	60,100
석결명	281,200	0	56,700	618,900
해 마	23,300	100	1,600	16,600
해 룡	73,400	0	7,000	70,300
자초용	1,082,500	200	5,600	64,400
구 관	385,800	1330	74,600	427,400
별 갑	995,200	10,500	128,500	448,800
오령지	8,367,000	15,000	384,200	378,000
섬 수	206,900	0	11,000	15,520
상표초	841,200	0	113,800	153,200
사 향	8,261,600	2,200	1,443,100	3,596,500
합마유	722,000	900	4,800	17,500
진주모	5,804,400	371,700	883,600	1,197,400
해부석	7,776,500	0	152,100	167,200
산 호	150,000	0	1,100	4,800
우방자	41,836,100	0	149,170	2,233
자괘치	1,105,620	0	20,800	28,200
붕 방	521,900	0	40,600	51,700
자위피	565,600	0	113,600	63,100
합 개	366,640	0	32,100	735,900
선 태	113,370	60	12,500	53,200
오초사	1,316,600	50	128,020	154,440
금전백화사	2,819,600	520	667,300	889,800
전 갈	478,500	5,750	72,700	156,200
오 공	154,725,400	12,600	29,959,400	31,157,500
천산갑	245,600	10	44,100	250,900
모 려	154,712,000	0	1,298,700	42,000
영양각	0	0	0	

현재 약용으로 이용되는 동물성약재중 야생에 분포하는 것은 27종, 23만톤이다. 사향, 해마, 구갑, 별갑, 자위피, 전갈, 천산갑, 뱀종류 등은 야생의량이 적어 공급량과 수요량의 차이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표 16)

중국에서 생산되는 광물성약제는 13종, 1,112억톤으로 활석이 1,110억톤으로 가장 많다. 수요량은 석고가 4,587톤으로 가장 많고, 활석, 옹황, 자석순이었다.(표 17)

표 17. 상용되는 광물성약제의 분포량, 연간공급량 및 연간수요량

품목	분포량(톤)	연간공급량(kg)	연간수요량(kg)
석 연	2,904	37,000	19,500
석 해	20	400	11,860
화예석	10,028,160	40,000	39,700
아관석	1,001,694	8,000	31,200
사함석	206,700	1,500	7,500
노감석	1,900	30,100	53,000
자 석	32,609,000	336,160	565,200
응 황	1,382,392	1,225,000	928,500
주 사	59,407	132,000	174,100
석 고	32,410,000,000	51,431,500,000	45,874,000,000
한수석	712,459	35,900	82,800
우여량	19,536,544	21,800	61,700
활 석	111,000,000,000	16,771,000,000	34,944,000,000

자료 중국중약자원, 1995

한약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식물·동물 및 광물 등의 천연물질을 정제와 가공을 거쳐 한의학적인 이론에 의해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치료 및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물로 정의되어진다. 한약제의 유통경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식물·동물 및 광물 등을 채취 또는 재배하는 생산단계 및 수집단계에 이어서 한약제조업소 등에서 한약을 만드는 한약제소비단계의 꺾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약의 유통은 제조업소에서 한약을 제조하여 도매업소를 통한 수집 및 분산단계를 거쳐 한의원, 한방병원, 및 한약방에서 조제용 한약을 만드는 소비단계로 구분된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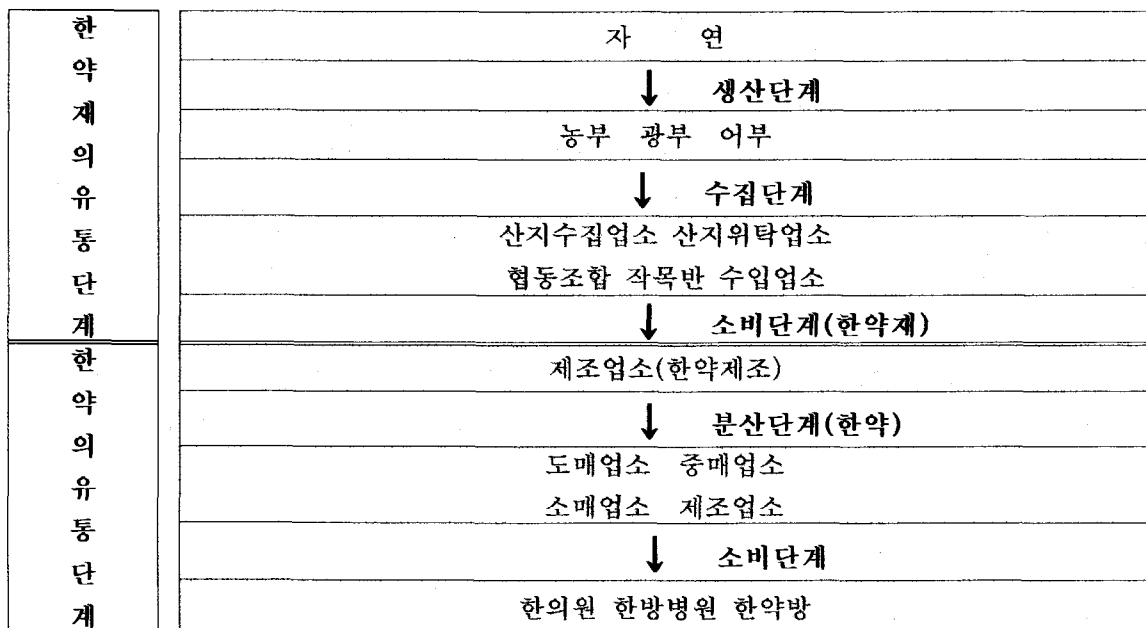


그림 1. 한약제와 한약의 유통단계

한약재 유통경로는 생산단계에서는 농림부에서 관리하지만 규격화된 한약재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단계가 매우 복잡하여 감시 및 감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한약재를 다루는 각 단계별 취급자의 역할이 뚜렷하지 않고 한약재 재배가가 영세하여 한약재 유통을 대신하는 중개인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더욱 복잡한 유통구조를 형성하였다. 현재 서울의 경동시장과 대구의 약령시장은 아직도 재래시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현대화 및 대규모화가 절시리히 시급하다. 또한 주산단지 활성화를 통한 거래활성화 및 투명화를 시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표 18)

표 18. 한약재의 관행적 유통구조

한약재의 관행적 유통구조	
◇	생산자 → 위탁상 → 행상 → 소비자
◇	생산자 →산지수집상 → 위탁상 → 행상 → 소비자
◇	생산자 →산지수집상 → 위탁상 → 소비자
◇	생산자 →산지수집상 → 위탁상 → 도·소매업소 → 소비자
◇	생산자 →도·소매업소 → 소비자
◇	생산자 →공영도매시장 → 도·소매업소 → 소비자
◇	생산자 →공영도매시장 → 소비자
◇	생산자 →생약공판장 → 소비자
◇	생산자 → 농협공판장 → 소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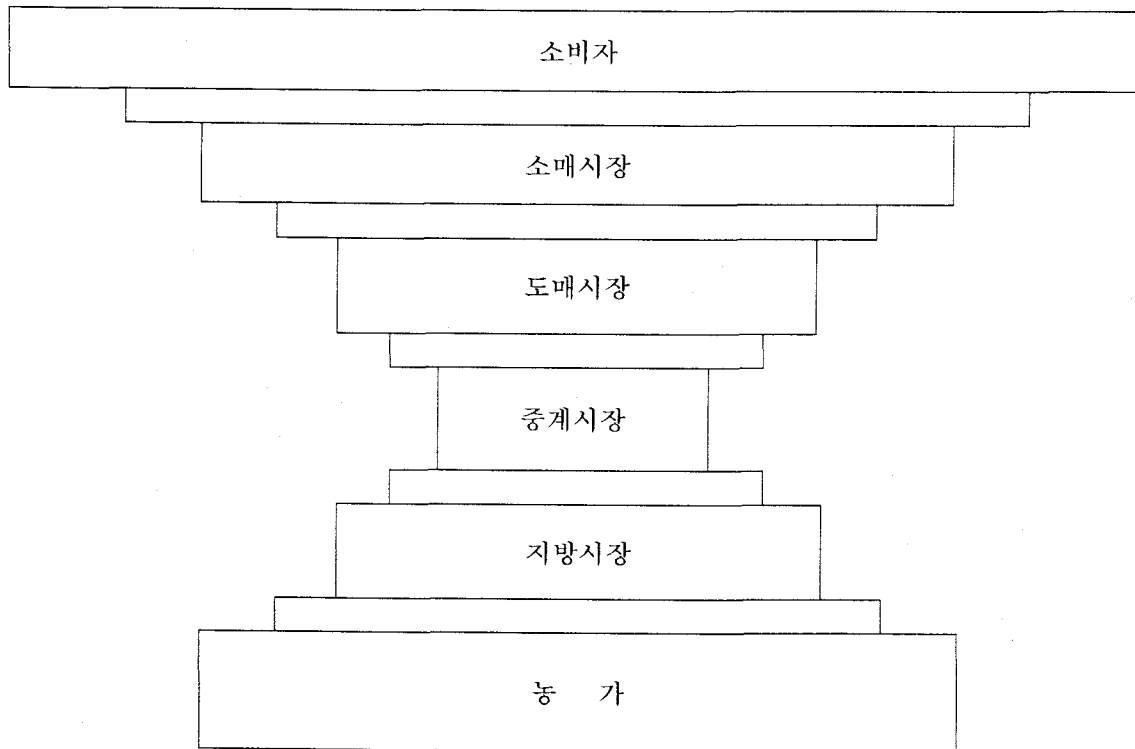


그림 2. 농산물의 유통단계

농산물의 유통은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산지에서 집산되어 중계업자를 거쳐 대단위중매업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위하여 여러 단계를 거침으로써 가격의 불안정이 초래되고, 도시집중성을 나타내어 소비가 영세적이다.(그림 2)

11. 인삼 및 한약재의 위기 극복 방안

1. 인삼연구소 설립

인삼연초연구원의 민영화로 인하여 인삼에 관한 기초연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인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인삼의 고품질원료삼을 위한 청정인삼재배법을 확립해야 하고, 외국삼과의 효능비교를 통한 고려인삼의 성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신품종개발을 하여 우수한 고려인삼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충청남도 금산군의 인삼의 고장으로 유명하며 국제인삼물류센터가 건립될 예정이어서 인삼연구소를 건립하기에 가장 적당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2. 인삼전담부서 신설

우리나라 천혜의 산물인 인삼에 관한 전담부서가 정부내에 조직되어 있지 않음은 매우 애석하다. 현재 재배되고 있는 인삼(재배삼)은 농림부의 채소특작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산양삼(장뇌)은 산림청에서 관장하고 있어서 정책의 이원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 WTO체제하에서 외국의 농산물이 개방되어 국내에 수입되어 올 상황에 놓여 있는 바, 특히 중국의 저가인삼이 국내에 유입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북미삼의 국내 수입 가능성도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책을 세울 전담부서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프랑스의 포도산업과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오렌지산업 등과 같이 인삼산업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호되어야 하며 고려인삼의 성가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인삼국 인삼과”를 신설해야 한다.

3. 인삼을 관리하는 전문인력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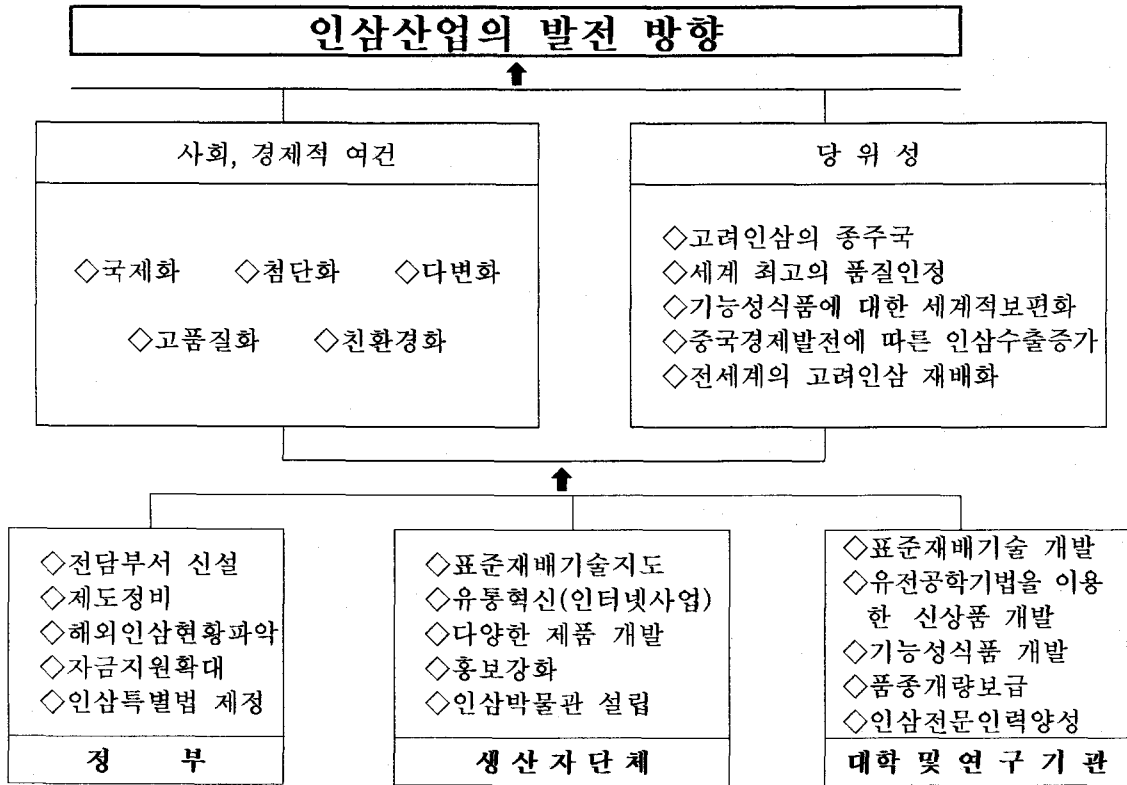
국내의 농업분야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은 산업으로 부각될 수 있는 인

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인삼의 재배·생산·유통·가공·제조와 관련된 부문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어 인삼에 대한 기초연구가 미흡하고 고품질원료인삼이 생산되지 않아서 홍삼원료가 부족한 실정이며, 인삼가공에서도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삼의 기초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를 대학에 설립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인삼 수출활성화를 위한 해외홍보 방안 및 시장개척방안

해 외 홍 보 방 안	시 장 개 척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개최 ◇해외인삼사절단 파견 및 고려인삼 성과 홍보 ◇의약품이 아닌 기능성식품으로 홍보 ◇경쟁상대국의 연구가의 인삼비교연구 활성화 ◇해외 직영판매장을 통한 홍보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인삼관광상품 개발 ◇인삼전시관 및 박물관 건립 ◇인삼연구소 설립 ◇인삼테마여행상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바이어 관리 및 신규바이어 발굴 ◇수출다변화 정책 개발 ◇해외광고 게재 ◇식품박람회등 참가 ◇전자상거래의 활용 ◇식품과 의약품의 분리 ◇제품의 다양화 ◇품질인정제도 도입

5. 인삼산업의 발전 방향



6. 보건복지부내의 한약관련부서 확대 및 전문화

현재 보건복지부내에 한방관련부서가 있기는 하나 규모가 타부서에 비해서 적을 뿐 아니라 적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약분야의 정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인삼과 한약재는 농산물로서의 가치와 약재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이를 담당하는 부서간의 상호협조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산물과 한약재의 개념 확립 및 식품으로서의 적용범위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공청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인삼과 한약재의 신상품 개발 및 재배방법의 개선은 유효성분함량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서 두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내에 “한약자원관리과”의 신설이 있어야 한다.

7. 한약자원을 관리하는 전문인력 양성

앞으로 국내의 새로운 산업으로 부각될 수 있는 한약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현재 한약재의 효능분야는 의학적 발전으로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으나, 약용식물의 기초적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한약재의 재배·생산·유통·가공·제조와 관련된 부문은 전문의료인력이(약사 또는 한약사) 담당할 수 없기에 한약자원을 관리하는 학과를 대학에 설립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양

성해야 할 것이다.

8. 한약재산업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문 제 점	극 복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배면적의 감소 및 재배기술 부족 ◇해외시장의 정보부족 ◇정책적지원 미흡 ◇불량종묘의 의한 피해 ◇품종구별의 불분명 ◇농산물과 한약재의 구분 모호 ◇유통구조의 복잡성 ◇한약재 시장의 시장기능의 취약 ◇심한 가격의 변동폭 ◇국산한약재의 모호한 산지구분 ◇한약재와 식품과의 혼용 ◇고가한약재의 비정상적 유통 ◇통관검사의 양면성 ◇저품질의 한약재 수입 ◇수입한약재의 불분명한 원산지 ◇수입한약재의 국산한약재료의 위조유통 ◇허술한 규격품 관리 ◇한약 규격기준의 미 확립 ◇규격품에 대한 낮은 선호도 ◇불완전한 한약 규격화정책 ◇제조업소의 육성정책 미비 ◇한약재산업 육성정책 부족 ◇한약전담기구 부재 ◇농림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정책 ◇독립적인 한약법의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인의 건강 및 한약에 대한 관심 증가 ◇한약의 소비시장 증가 ◇시장기능의 활성화 ◇농산물과 한약재의 구분 확립 ◇한약재 수입의 증가 ◇야생 동·식물 사용에 대한 규제 ◇생산자의 조직화 ◇한약유통구조의 개선 ◇종합적 유통관리 기구 설립 ◇한약의 규격화 ◇규격품에 대한 품질기준 확립 ◇규격품 소비의 의무화 ◇식품과 한약재의 구별 판매 ◇한약사용의 감시감독 기능강화 ◇규격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사업 ◇고품질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사업 ◇한약자원을 관리하는 전문인력 양성 ◇한약관리인에 대한 명확한 역할 분담 ◇한약을 위한 법령제정과 집행기구의 설립 ◇보건복지부내에 한약자원관리과 신설 ◇농림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의 기능을 통합하는 한약전담기구 설립 ◇한약박물관 건립 ◇약용식물의 기초연구 강화

III. 결론 및 제언

최근 세계무역자유화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은 우리의 농촌 현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즈음에 우리나라의 천혜의 산물인 인삼과 약용식물들의 산업화는 우리의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다. 옛부터 인삼은 우리나라의 “고려인삼”이 약효가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어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물로 알려져 왔다. 최근에는 인삼의 효능을 나타내는 물질들을 밝혀 내어 유전자공학을 이용하여 이들을 대량생산하는 기법과 이들을 이용한 기능성식품개발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삼의 효능에 치우친 연구개발로 인하여 인삼의 기초연구가 부족하여 고품질의 원료삼생산이 되지 않아 홍삼제조에 차질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인삼의 신제품 개발이 되지 않고 있고, 농약사용으로 인한 잔류성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유통구조 또한 아직도 전근대적 방법을 지향하고 있으며, 중국의 저가인삼의 국내 유입 및 해외시장의 북미삼의 약진에 대한 수출저조는 인삼산업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인삼산업의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삼의 기초연구를 강화하여 신제품육성 및 표준재배법 확립, 그리고 북미삼과의 효능을 비교하여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해외에 홍보하고, 고품질의 청정인삼을 확보하며,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인삼재배가의 소득을 향상시켜 생산기반을 안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상대국의 인삼정책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정부기관에 인삼을 전담하는 부서가 필연적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물을 위한 전담부서를 둬으로써 인삼에 관한 제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현재 인삼(재배삼)은 농림부에 관리하고 산양삼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이원화정책을 단일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삼연초연구원의 민영화로 인하여 인삼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바, “인삼연구소”의 설립은 빠른 시일내에 설립되어야 한다. 충남 금산은 인삼의 고장으로 유명하여 인삼연구소를 설립하기에 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약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약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천연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동일한 약물이라도 복잡한 유통과정과 다양한 품질로 이용되어왔다. 한약은 재배되어 생산하는 단계에서는 농산물로 취급되어 농림부에서 관리하고 규격화이후에는 한약으로 취급되어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통단계의 복잡성과 감시·감독의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각 단계별 한약재 취급자 또한 역할 규정이 뚜렷하지 않아 관리가 미흡한 상태이다. 한약재를 생산·채취·재배자들의 영세성, 재배면적의 감소 및 재배기술 부족, 해외시장의 정보부족, 정책적 지원 미흡, 불량종묘의 의한 피해, 품종구별의 불분명, 농산물과 한약재의 구분 모호, 유통구조의 복잡성, 심한 가격변동폭, 한약재와 식품과의 혼용, 한약 규격기준의 미확립은 한약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그리고 한약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 및 전담관리부서의 부재와 한약자원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의

부재로 한약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현행 한약유통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향후 일반인의 한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한약재의 소비시장이 증가함에 따라 한약재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한약유통관리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약유통관리제도는 유통단계를 최적화하고, 유통관리를 체계화하며, 한약을 규격화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수입한약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강화하여 저질 또는 위품의 유통을 근절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조업소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하여 제조업소에서 생산되는 규격품의 품질을 높이고 제조업소에 대한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한약이 의약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규격품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한약사용의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규격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사업을 통하여 한약의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를 활성화시켜 한약재배가의 소득향상을 꾀하도록 한다. 한약자원과 관련된 법안을 제정하여 약용식물의 한약화에 대한 안정을 증가시키며, 한약의 재배·생산·가공·제조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에 학과를 개설하도록 하며, 정책적으로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하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약자원관리과”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한약재를 기능성식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은 한약재의 식품화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농림부, 보건복지부, 한약관련연구소 및 한약관련대학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광범위한 약용식물의 이용성을 추구함으로써 한약산업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금산인삼연구실. 인삼류수출현황. 2001.
2. 금산인삼연구실. 인삼의 국내동향. 2000.
2. 대전대학교 금산인삼국제화연구단. UR대응 금산인삼시장의 경영진단 및 국제화 연구. 1995.
3. 세계의 인삼산업(미발표자료). 1995.
4. 21C 인삼산업 발전구상과 인삼협동조합 참여방안. 인삼산업협동조합중앙회 1995.
5. 인삼. '97농촌지도공무원 전문교육교재. 농촌진흥청 1997.
6. 인삼약초산업전략화추진위원회. 인삼약초산업의 전략화방안정책집I 2001.
7. 인삼협동조합 경영진단. 경영전략연구소. 1994.
8. 인삼협동조합중앙회. 고려인삼의 차별적 유통방안. 1997.

9. 최신고려인삼. 한국인삼연초연구원1996.
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약유통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2000.
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약품질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2000.
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약품질 및 유통관리체계에 개선방안 연구. 2000.
13. 한국식품연감. 농수축산신문. 1992 - 1996.
14. 한국인삼제품공업협회. 일반현황. 1997-1999.
15. 한국한약도매협회. 한약유통에 대한 연수교육교재. 2001.